

2022 열린 인생 19.

믿음!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

[시편 145:4]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1. 약속의 땅 - 믿음으로 나아가라

약속의 시제는 미래다. 약속은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인격을 담은 구성원 간의 하나된 마음이다. 그래서 약속은 단순한 어떤 일에 대한 협약보다 더 깊고 넓다. 그 이유는 '인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은 일에 대한 협약이기보다는 인격에 기초한 신뢰다. 약속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약속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약속은 두 사람 간의 인격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약속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

[요한계시록 4: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하늘의 천사들과 네 생물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은 창조주의 속성이며, 그 속성은 변함이 있는 인간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인간은 변한다. 인간의 생각, 감정, 뜻, 육신은 변한다. 그러나 영은 변함이 없다. 혼과 육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만 영의 세계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준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아는 존재,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약속이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이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는 경우는 한 가지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마음이 변해서 약속이 깨지는 것이다. 환경을 통해 마음에 두려움, 위축, 욕망, 야망 등이 생겨날 때 인간은 약속을 잇는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얻은 첫 번째 비결을 말했다. 첫 번째 비결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일 하나까지 세밀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사랑은 관심이다. (그래서 작은 틈,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의 영역**이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다. 누구에게 약속이 성취되는가?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 믿음과 약속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다.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약속의 속성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이다. 믿음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의 출처가 어디인가? 사람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표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어떤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1:7-8]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29-30] 29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노아의 꿈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노아의 바라는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 취한 것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브라함의 바라는 것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으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들이 되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다. 네 앞에 여리고도 있고, 애굽과 광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대한 가나안 거민도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신 것이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믿음은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사람과 환경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변함이 있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흔들린다. 그리고 결국 부정적인 말을 한다.

여호수아를 향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약속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었고 그 약속이 바라는 것들이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2.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현실이 된다.

(1)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현실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임을 기억하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 55:8-9]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다.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다. 높은 곳으로 가야 전체 형태가 보인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다 아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된다.

약속의 땅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절대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과 내 능력은 스케일이 다르다. 사이즈가 다르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칭찬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십자가에서 바울처럼 날마다 옛 자아를 죽여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내 경험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해야 한다.

(2)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말을 한다. 긍정적인 말을 한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약속의 땅 앞에서의 '언어'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민수기 14:28]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약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결국 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말은 '하나됨'을 말한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한다.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3. 세대에 걸쳐 놀라운 일을 말하라

[시편 145:4]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Psalms 145:4] **One generation will commend your works to another; they will tell of your mighty acts.**(NIV)

놀라운 말씀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들이 나타나는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들의 실재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 때문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선포한 것이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모세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말하라. 그때 꿈이 생긴다. 현실을 말하는 세대는 너무나 많다. 그러나 약속을 선포하는 세대는 드물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전이 되고 꿈이 되며 현실이 된다. **기억해야 한다.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능한 일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다.**

'대대로'라는 말은 마지막 세대의 말과 그들의 간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연결된 모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야곱과 연결된 이삭이 이삭과 연결된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엘리사와 연결된 엘리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늘 나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한다. 그래야 그 선포를 유업으로 받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경주를 앞둔 세대 앞에 있다. 성경적으로 마지막 세대는 가장 소중한 세대다. 그 세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 할렐루야!